

# 삼손 · 푸로메 데 우수 · 예수

— 難局의 克服을 위하여 —

主 幹

## 1. 최후의 소원

구약에 어느 民族說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傳說的 巨人 이야기가 있다. 그가 삼손이다. 그의生涯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에게 占領되어 있었다. 주전 12세기에 블레셋 족속은 地中海 연안을 점령하고 한동안 상당한 文化를 전설했는데 이스라엘도 그 휘하에 있으므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 때 이스라엘의 한 부부가 아들을 언자(나실)로 결정했다. (나실)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실인은 몇 가지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절대로 알콜을 입에 대지 않고 ② 屍體를 만지지 말 것 ③ 生來의 머리를 절대로 깎지 않는 것 등이다 (민수기 6장). 이것도 금욕생활, 정결한 생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의 힘으로 산다는 뜻이다.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 블레셋 民族의 손에

서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로서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목적에서 갈팡질팡 한다. 그는 敵의 女人인 블레셋 女人에게 현혹되어 마침내 아내로 맞아 들이기도 하며 창기의 집에 드나들므로 정결한 생활을 파계하는가 하면, 함부로 힘을 과시하여 獅子를 찢어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가 하면 그 물건들을 약탈하며, 적은 일에 격분하여 여우 3백마리를 잡아 그 꼬리들을 서로 매어 거기 불을 붙여 곡식밭에 모두 넣어 태워버리는 등 난폭한 일을 거듭했다. 그에게 단 하나 보존된 것이 있다면 힘의 원천인 머리를 깎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런데 창기 드릴라의 거듭된 유혹에 넘어가 그 머리까지 깎기므로 완전히 無力해져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비극은 시작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결박하고 그의 눈을 떼고 옥중에 있는 멧돌에 비껴어 매어 그것을 돌리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神 다곤 (곡식의 神)에게 받치는 祝祭에 삼손의 최후를 희롱하기 위해 3천명 이상 모인 神殿에 그를 끌어냈다. 마지막 제물로 받쳐지려는 순간이다. 이 때 삼손은 다음 같은 최후의 기도를 드린다. “주 여호와에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나님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같은 기도와 함께 그는 최후로 모든 힘을 모아 비껴려매인 기둥들을 부러트려서 그 신전을 무너트림으로 거기 있는 敵들을 몰사시키고 자신도 장엄한 최후를 맺었다.

이 얘기에서 배울 것이 많다. 허탕하던 生涯를 죽음 앞에서 총정리하고 그 힘과 뜻을 처음 目的에 집중해서 죽음으로 거사했다. 이번만 힘을 주소서! 이것은 마지막 소원이며 그의 본 뜻에 복귀한 순간이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의존했으며 自身の 죽음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은 원수를 갚는데 있었다.

이에 대해서 희랍의 전설에 나오는 한 巨人의 장엄한 최후의 얘기가 있다. 푸로메테우스가 그것이다. 푸로메테우스는 창조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자 神을 배반하고 人間의 편에 섰다. 그는 제우스 神의

법을 어기고 神만이 獨占한 불을 훔쳐서 ‘人間들에게 줌으로 人間の 이익과 해방을 꾀했다. 그 벌로 그는 코카사스 바위에 銅鐵로 결박된 채 계속 목수리에게 간을 뜯기고 있었다. 그는 아우에게 최후의 부탁을 한다. 그는 아우에게 굳게 잠근 상자 하나를 열지 말고 꼭 간직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 아우는 인간을 멸하려고 제우스가 보낸 女人 판도라의 꾀임에 넘어가 그 상자를 연다. 그 순간 그 안에 病, 증오, 도둑질 등 人間 세계를 멸할 惡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푸로메테우스는 人間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그것을 본 그 아우는 겁에 질려 그 무정을 도루 달았는데 그 상자 안에서 “나도 내보내 주오”하는 가냘픈 비명을 들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나는 희망이오”했다. 푸로메테우스의 최후적 배려다. 萬一 세상에 병과 증오와 같은 악이 범람하여 人間들이 고뇌 속에 잠기게 될 때 “희망”을 내보내 그것으로 人間들을 살릴터던 것이다.

푸로메테우스는 삼손 보다는 높은 次元에 섰다. 삼손의 최후의 소원은 복수인데 푸로메테우스의 최후의 소원은 그의 출발과 같이 人間을 위해서였다. 그는 人間을 위해서 神을 거역했으며 인간의 약함에



항거하여 희망을 간직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배신이라는 것이다. 푸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배신한 것처럼 그 아우는 푸로메테우스를 배신했으며 그것은 제우스神과 인간세계 사이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었을 뿐 아니라 더 惡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서 누가가 서술한 예수의 최후의 얘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도 삼손이나 푸로메테우스와 같이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삼손이 神殿기둥에 비껴 매인채 죽음 앞에 섰듯이, 푸로메테우스가 코카사스의 바위에 결박되어 죽음을 기다리듯 예수는 十字架틀에 못박혀 죽음을 맞는다. 예수는 人間들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한 것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듯이 침묵되어 아무런 것도 없는 현장에서 지켰다. 그러나 그는 이번만 강하게 하소서 하던 삼손처럼 피곤과 절망, 아픔속에서 마지막 정신을 가다듬고 드린 기도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이다.

이것은 복수를 위해 최후의 소원을 드리던 삼손의 그것과도 다르며 오직 人間만을 위해 神을 배반하던

푸로메테우스의 그것과도 다르다. 이 마지막 절규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철저화가 있으며 한 쪽을 위해 다른 한 쪽을 배신하여 이 쪽의 것을 뺏아 저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쪽과 저 쪽의 불화 사이에 자신을 화해의 제물로 받치는 것이다.

## 2. 우리의 所願

최후의 순간! 죽음 앞에서의 소원은 바로 그 삶의 총결산이다. 위기 앞에서의 소원은 그 삶의 근거를 노정함과 동시에 삶 전체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또는 어떤 위기 앞에서 자기의 힘을 총집중해 오지 못한채 죽음에의 공포에 삼켜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앞에서 삶의 애착을 絶絶한다. 그래서 가졌던 것을 놓아 버리는 것이 원통해서 발악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모아 죽음을 각오하면서 행동한다. 그러나 求心點을 회복하지 못한채 그저 복수의 化身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거나 亂射해 버린다. 우리는 탈출병을 위시한 不滿의 化身이 된 젊은이들의 최후적 난동사실을 많이 보아왔다. 이런 경우를 보면 오히려 삼손의 최후를 느끼게 된다.

죽음을 각오했을 바에야 삶손이 이스라엘의 원수 불레셋 사람들을 육탄으로 죽이듯 구체적 원수라도 죽이는 행위가 훨씬 뜻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나 日本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복수행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높이 사는 전통이 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서원하고 나서는 아들이나 어떤 집단에 대한 복수를 위해 생명을 내대는 행위를 아무 비판 없이 감동적으로 받아드린다. 이런 사회에서 “앙가름”은 삶의 動力처럼 되어있다. 적개는 질투, 경쟁심, 그것이 노출되면 싸움, 殺人이 되고 集團化된, 행동으로 戰爭으로 번진다. 그런 복수심은 사리를 판단하는 지성을 흐리게 하고 그 마음은 고갈되어 남은 줄에 매달려 시들고 새 것을 받아드릴 틈을 주지 않는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는다. 복수의 악순환은 언제나 증대된다. 뺨을 맞는 사람은 뺨으로 돌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얼굴 전체를 때려야 된다. 그러므로 복수를 최후의 소원으로 하면 결국 복수를 만연하게 함으로 비극을 확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최후 순간에 자기의 처지 보다 남기고 가야할 가정의 자식이나 가장 사랑하는 者를 위한 염원으로 장식하는 마음이 있다.

父母의 마음은 대체 그럴 수 있다. 남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폭의 차이는 있어도 푸르토테우이스의 그것에 속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그를 위하고 싶다. 너를 위한다는 마음이 부조진 높이 평가되어 마침내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죽여가는 父母 또는 妻子의 위기를 건지려는 강도행위도 동정을 산다.

이에 대해서 죽는 순간 나 아닌 두 사람의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고 그것을 위한 제물이 되려는 절규가 있다. 가령 원수가 된 아버지와 아들, 갈라진 아들과 며느리 또는 두 자식 아니면 아들과 원수된 그 친구와의 화해를 위해 두 손을 함께 잡고 숨을 거두는 어떤 어머니의 절규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이것은 하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를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둘 다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소원이다. 누가 묘사한 예수의 최후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에 해당된다.

### 3. 難局의 克服

우리는 슬픈 歷史를 지닌 民族이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계사에서 어떤 공헌을 한 일이 없다. 政治의 힘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思想의으로도 이것이라고 뚜렷하게 내



세워 본 것이 없다. 그것이 삶의 原則이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산 증거다.

우리는 지금 악순환의 百尺竿頭에 섰다. 그래서 執權者나 國民들이 이 때를 難局이라고 한다. 어떤 難局인가? 政治的 難局, 경제적 난국등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런데 그 어느 것이든 이 難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채 陰性的인 풍조가 繼續적으로 드러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보복적 행동이다. 이 難局을 克服할 길은 (總和)의 길뿐이라는 政府의 주장은 事實이다. 그런데 政府는 既得權을 固執하고 그 태두리 안에서 그것에 승복하는 천제에서 總和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一體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으로 응수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는 피해자로서의 보복심을 고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결국 難局의 打開라는 根本 課題는 뒤편에 두고 自己 中心的 利害關係에 혈안이 된 입상이며 따라서 어떤 해결의 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民主主義 사회에서 비판정신이 없으면 그 사회는 망한다. 비판의 소리를 보복하려는 정부라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

이다. 反面에 비판과 보복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忠情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 그것이 단순한 불만의 폭발이면 그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 올 따름이고 難局을 타개할 새로운 힘이 될 수는 없다.

공산주의 혁명은 삼손적 복수와 푸르메데우스의 탈취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既得權者에의 보복과 그들의 것을 송두리채 뺏아 다른 계급에 넘긴 것이 공산 혁명이다. 그러므로 증오심을 고취하고 暴動을 일으켜 칼로 革命을 일으킨 것이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分配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權力上으로 독재체제를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칼로 한 革命은 그 칼을 계속 휘두르는 동안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에는 참意味와 國民의 總和는 없다. 칼로 강압하는 사회에 어떻게 總和가 가능할 것인가! 눌린자의 해방과 평등이라는 숭고한 정열에서 발단된 맑시즘이 새로운 權力계급을 만들므로 歷史上 유례 없는 조직적 非人間化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 것은 결국 복수를 動力으로 사용한 결과며 복수의 힘이 얼마나 악마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한 결과다. 맑스를 푸르메데우스의 化身처럼 내세우는 공산혁명의 주체들은 스스로

푸르메데우스가 되는 대신 푸르메데우스가 생취한 불을 뗀어 自己들의 무기로 독점한 결과가 됐다.

이 民族의 未來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은 증오나 복수심에 호소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 李朝의 黨爭은 복수政治의 전형인데 그것이 우리 歷史를 奇型化했다. 그런데 그 같은 보복적 政治는 權力慾에 血眼된 極少數의 政治꾼들의 난동에 연유한 것이지 우리 國民性的 발로는 아니다.

우리는 最近의 例로써 8·15의 해방 당시와 4·19혁명 당시의 우리의 國民의 기상을 회상하면 充分하다. 스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弟子의 勢力에 의해 하루 사이에 투항한 日人들에게 한국국민은 얼마나 관대했는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日人들의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평화롭게 뛰놀았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죽은한 눈으로 바라봤다. 4·19는 복수심이 動力이 된 혁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官權의 포악성과 부정부패를 쫓은, 몸으로 가로막은 事件이다. 그 마당에 죽은 數百名の 젊은 魂은 무엇을 염원하면서 죽었는가? 그것은 이승만정권이 항복하는 순간 그것을 굴복시킨 젊은 자자들이 순식간에 양이 되어 거리에 나가 交通질서를 정리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사실과 이승만

이 유유히 거리를 거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4·19는 삼손의인 복수행위를 뗀 푸르메데우스의 거사였다. 그것은 獨占한 權利를 뗀어 國民에게 돌려준 행위였다. 그러나 4·19의 거사는 十餘年의 獨政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운동의 主體를 낳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뒤의 歷史는 또 다시 뗀고 뗀기는 악순환에 말려들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對立은 極에 이르렀으며 彼此의 不信風潮가 오늘과 같은 難局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삼손의인 분노가 破局으로 몰아갈 위험선에 이르렀다. 분노의 조장으로 보복을 정당화하면 너도 나도 함께 亡하는 길 뿐이다. 이에 대해서 푸르메데우스의으로 권력의 소유자를 교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樂觀的인 생각이 支配的이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우리가 處한 難局의 性格을 피상적으로 본 것이다. 오늘의 對立關係는 이 民族全體의 끝수에 미친 큰 상처를 주었다. 이 상처는 개헌이나 政權交替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늘의 責任을 묻는다면 權力構造나 경제 균형을 破局에 몰아 넣은 문제 보다는 이 民族性에 끼친 不信이라는 惡素다.



이것은 權力の 再分配나 경제의 균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다 높고 깊은 次元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不信의 풍조는 人間不信이라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이 常用語처럼 된 이 현실은 構造에 대한 불신임 보다 根元的인 것이다. 이것이 政治體制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적 현상을 가져왔음에 틀림 없다.

人間不信은 人間回復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그런데 人間回復은 人間을 對立關係(罪)에서 풀어 노아야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본다. 하나는 和解의 길이요, 또 하나는 第3의 비존이다. 和解의 길은 過去를 완전히 無로 돌리므로 원수된 關係를 해소하는 일이고, 비존이란 태제에서 안디태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反作用의 波紋이 미치지 않는 이미 가진 배 것도 내 것도 아닌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 개념으로 말한다면 宗教的 次元이다.

예수의 죽음은 삼손이나 푸르메 테우스처럼 處刑된 데서는 같으나 그것은 和解를 위한 죽음이다. “아버지 저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최후의 소원은

兩極의 틈바구니에 處刑된 자의 화해의 향불이다.

이 예수가 나를 따르려거든 十字架를 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權力者들에게 수난을 당하면서도 和解의 祭物이 되라는 부탁이다. 이제 올 우리의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그러므로 새로운 막을 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같이 和解의 祭物이 中間에 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종교인들의 분수다. 때리는 자와 맞은 자의 가운데 서서 맞을 때를 제 몸으로 막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和解의 죽음은 復活의 事件을 가져왔다. 삼손의 복수의 죽음은 배타적 民族意識을 낳게했고 불을 품쳐 人間에 주고 죽은 결과는 既存의 것을 人間에게 때물려 技術文明을 낳게 한데 대하여 復活은 전혀 새로운 未來를 開幕한 상징이다. 이것은 때린 자나 맞은 자가 함께 새로운 存在가 되어 參禮할 未來다. 復活事件은 바로 人類的 未來며 同時에 우리의 未來의 비존이다.

그런데 그런 未來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를 제시하는 것이 다음 世代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 역시 宗教人들이 提示해야 할 과제다. 그것이 어떤 것일가를 제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극히 기본적인 테두리는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모든 것이 平準化된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未來를 보는 마리아 讚歌는;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홀으셨으니,

제왕들의 권력을 낮추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도다……”고했으며

새례요한은 이사야의 豫言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아 평탄해 지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했다. 들 다 모든 것의 平準化를 말한다. 특히 마리아 찬가는

權力の 平準化, 意識구조의 平準化

그리고 경제의 平準化를 말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것은 구약에

서부터 一貫된 미래의 비존이다. 이 같은 입장에 불 때 와야 할 다음의

世代는 적어도 權力至上主義, 經濟第一主義는 克服된 현실이어야 할

것이다.

## 無神論者를 爲한 예수 마코비취 著

294면 값 1,100원

安炳茂 譯

이 책은 지금 공산정권 안에 있으며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표방하는 이의 저작이다. 그런데 이 책이 서구에서 출판되어 계속 베스트 셀러로서 읽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그가 공산정권화된 사회에서 맑스가 생각 못했던 모든 부조리와 제반 문제들을 주저 없이 폭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동경과 그것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有神論과 無神論의 對決을 실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새로운 예수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가 목표삼고 투쟁한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생생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 한국신학연구소 28-6602

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64-11

향린빌딩 201호, 대체 서울 511642